

# 통일민족사학 표방한 '민찬' 한국사

## 한길사 펴낸 「한국사」 전27권

‘최초’ ‘최대’ ‘民纂’이라는 화려한 수사로 수식된 27권짜리 역사서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한길사가 지난 1986년에 기획, 8년만에 빛을 본 「한국사」가 바로 그것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사로 기록한 새로운 시각의 역사서라는 점에서 학계를 비롯한 각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역사를 통사로 기록한 책은 이미 여러 종 나와 있다. 먼저 식민지시대 조선사편수회가 펴낸 「조선사」를 들 수 있다. 편년체로 씌어진 「조선사」는 식민주의 사학의 목적에 맞게 엮어진 사서로서, 이른바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내세워 우리 역사를 철저히 왜곡했다. 해방 이후 우리 역사학계가 ‘식민지사관’이라는 유행과 싸우게 된 까닭이 이 역사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해방 후에 기록된 통사로서 식민지사관을 극복한 대표적인 역사서는 진단학회가 1961년 전7권으로 발간한 「한국사」를 들 수 있다. 민간학회가 이룩한 최초의 성과였으나, 보수적 역사관, 식민지시대 이후의 현대사 누락 등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78년 간행된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전 25권)는 사실상 우리 통사의 대표격으로 자리매김되어 왔는데, 진단학회의 「한국사」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의 극복이 미흡했다는 점, 식민지 시기의 민족해방운동을 다루었으나 그것의 역사적 논증과 평가에 있어 이념적 편향성을 보였다는 점이 한계로 평가되어 왔다.

앞에서 보듯 방대한 규모의 既刊 한국 통사가 있음에도 한길사판 「한국사」가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단 ‘민찬’이라는 신조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역사서는 ‘官纂’과 ‘私纂’으로 구별하여 왔다. 관찬은 관에서 주도하여 편찬 간행한 역사를 이르고, 사찬은 관의 공식적인 역사관이나 역사 기술방법과는 달리 개인 특유의 역사관에 기초해 기록된 역사서라 할 수 있다. 엄밀한 의미로 한길사판 「한국사」가 사찬에 해당함에도 굳이 민찬이라 한 것에 대해 편집위원의 한 사람인 조광 교수(고려대)는 “민찬이라는 용어가 이미 있었는데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이번의 한국사는 ‘민’을 의식하여 진보적 시각을 가진 이들이 중심이 되어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고 말함으로써 「한국사」의 기본적인 서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말하는 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난 80년대

는 역사의 시대였다. 학계에서 줄곧 과제로 이야기되던 식민지사관을 일거에 뛰어넘고, 한국 사학계의 불모지라 할 근대사가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되고 연구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역사의 르네상스’가 학문의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場外에서 활기를 띠었다. 그 같은 역사적 현상이 일어난 까닭은, 동어반복적이지만 역사적 요구였다. 80년대라는 현실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읽고자 한 열망을 광범하게 촉발한 것이다. 일찍이 우리 역사에서 80년대만큼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말했던 카의 역사관이 호소력을 지녔던 시절은 없을 것이다.

한길사판 「한국사」는 그런 면에서 80년대 특유의 이념 세례를 받은 일군의 진보적 지식인들의 열망에 대한 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견해는 이 책의 편집위원들의 말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한국사회가 산업사회 단계에 접어들면서 한국인들은 사회 경제적으로나 사상적으로 격동적인 체험을 하였다. 그 격동적인 체험의 한복판에 민족으로서의 자립과 민주사회로서의 자기정립이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1970년대 이후 한국인들은 우리 겨레의 지나온 역사과정에서, 민족으로서의 성립 성장과정과 민주사회로서의 발전과정을 주의 깊게 살피게 되었고, 그러한 인식 노력의 결과들이 이 「한국사」 전27권이라고 생각한다”는 정창렬 교수(한양대)의 말은 이를 웅변하고 있다.

또한, 강만길 교수(고려대)는 “우리의 근대사학은 이제 1백년 가까운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다. 험난했던 근현대사를 살아오면서 우리 사학계는 민족사 전체를 체계화하려는 노력을 나름대로 계속해 왔다. 그러나 식민지 시기와 분단시기를 겪어오면서 우리 역사에 대한 서술은 많은 부분 왜곡되거나 혹은 충실하지 못했다”고 전제하면서, “우선 고대, 중세사 전체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역사학계의 오랜 인습의 하나였던 근현대사 특히 현대사 연구 기피증이 극복되어 가고 있다. 또한 종래 금기가 되다시피했던 일제 식민지 시기, 민족해방운동전선에서의 좌익전선 활동에 대한 객관적 연구가 젊은 연구자들에 의해 정력적으로 추진되어 제 위치를 확보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역사서를 기획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찾았다.

이미 강 교수의 말에서 나타나고 있듯, 한길사판 「한국사」는 크게 보아 다섯가지 입장에서 씌어졌다. 그 첫째는 일제 식민주의사학의 역사 왜곡을 바로 잡는다는 점이고, 두번째는 사회경제사적 방법론에 의거한 연구 성과의 포용, 세번째는 기간의 역사서가 일제식민지 시기와 해방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공백을 메꾸며, 마지막으로 북한의 현대사도 객관적으로 서술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통일 민족주의적 역사인식’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 이러한 서술 원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한 예를 통일신라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나온 역사서는 대개 신라를 중심으로 씌어져 통일신라를 강조해 왔던 것에 비해, 한길사판 「한국사」는 신라와 발해를 민족사의 차원에서 동등하게 취급, 남북국시대를 설정했다. 이에 대해 “여기에는 분단체제의 극복과 민족통일 달성을 통한 민족국가의 건설이라는 오늘의 한국사를 바라보는 지향점이 스며 있는 것”이라고 김영하 교수(성균관대)는 말하고 있다.

한길사판 「한국사」가 오늘의 시대적 요구라는 관점에서 씌었다는 점은 정치사, 왕조사 중심의 서술에서 멀찌감치 벗어나 사회경제사, 사상사, 생활사를 중심으로 씌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당장 시대구분이 교과서에서 익히 보아온 바와 다르다. 우리 역사를 크게 원시, 고대, 중세, 근대, 식민지, 분단 시대로 나누었다. 또한, 173명에 이르는 필자들 가운데 역사 전공자가 아닌 학자들도 다수 끼여 있어 이채롭다. 이는 방금 말한대로 ‘왕

조사나 정치사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경제학, 동양학, 정치학, 사회철학, 문학 전공자들이 필진에 참여, 그 다채로움과 새로움을 더해주고 있다.

어느 누구도 역사라는 포층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있다고 자부하는 이는 그렇다고 느낄 뿐이지 결코 진정으로 역사로부터의 도피에 성공할 수 없다. 우리가 역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사실의 단순한 나열이 역사가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역사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열린 텍스트다. 한길사판 「한국사」가 가능했던 것도 해석의 다양성이라는 역사본디의 존재근거 때문이다. 따라서 한길사판 「한국사」의 출간은 우리 역사학계에 큰 과제 하나를 던졌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전 책을 통해 역사해석의 관점이 일관되게 관통되고 있는지, 필자들의 역사관이 史實 자체를 왜곡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른바 ‘통일민족주의적 역사인식’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論과 難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초, 최대, 민찬이라는 점을 표나게 내세우며 민족과 시대가 요구되는 새로운 한국사라는 출판사의 자화자찬이 없더라도 우리 출판문화의 열악성을 감안할 때 「한국사」의 출간은 상찬할 만한 일이다. 또한, 변화된 독서 환경을 염두에 둔듯 일부 필자들의 강의를 24매의 CD로 제작한 것도 돋보이는 기획으로 평가될적이다. 한길사판 「한국사」의 발간이 민족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대중적 관심이 동시적으로 증대되는 기록제가 되길 학계와 독자들은 기대한다.